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50호

2025년 2월호

### 고산미소시장 한 바퀴

문화관광청 테마장터로 2013년 문을 연 고산미소시장에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쌓였다. 그 사이 외양도, 품목도, 사람도 변했지만 넘치는 정만은 한결같았다. 반찬가게, 빵집, 샌드위치, 목공예, 가죽공방, 의류, 카페, 책방 등 31개 점포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월례회의를 마친 상인들이 시장 광장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화보 ... 8P ● 삶의 풍경 동상 김민준 이야기2 ... 10P
- 캘리그라피 작가 신선하 ... 12P ● 이달의 그림책 H마트에서 몰다 ... 15P





시장의 사랑방인 카페 아띠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장 사장님들, 군고구마 굽는 다원공방 전용희 씨,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씨니샌드위치의 김선희 씨

## 온~갖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고산미소시장

# 사랑받는 고산 문화의 중심

고산미소시장의 장터 풍경은 체험프로그램, 공연, 야시장 같은 문화행사로 더욱 풍성하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꽃피워낸 고산 문화의 중심지, 고산미소시장을 둘러봤다.

### ■ 고산미소시장의 아침

입춘이 지났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9일 오전. 저마다 다른 목적과 속도로 발걸음이 오가는 고산미소시장을 찾았다. 지난 며칠 동안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아 길이 불편할 텐데도 주차장에는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제법 빼곡했다. 문을 여는 시간부터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을 먹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칭칭 가위 부딪히는 소리로 흥겨움을 더하는 옛장수까지 광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고산미소시장을 돌로 나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향하면 광장을 등글게 둘러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보인다.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얼굴은 마냥 즐겁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상인들은 영업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중에는 정겨운 손맛으로 유명한 '소연식당'을 운영하는 장소연 씨도 있었다. 소연 씨는 "매일 아침에 장 봐온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며 손을 바빠 놀렸다. 구수하고 맛있는 내음으로 가득찬 소연식당에서 나와 맞은편 '삼성상회'를 들여다보았다. 온갖 종류의 마른 나물류 등으로 둘러싸인 어르신이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다. 신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거의 빠짐없이 한 자리를 지켜온 고목 같은 어르신이다.

### ■ 상인들의 사랑방, 카페 아띠

가게들을 둘러보던 중 커피 향기에 이끌려 삼성상회 옆 '카페 아띠'의 문을 열었다. 카페 안쪽에 모여 앉아 있던 사람 중 이곳의 주인장인 김경화 씨가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 궁금해하자, 그는 "평일에는 다른 일로 바빠서 남편이 카페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의 다른 가게를 관리하고 제과제빵 수업



붕어빵 굽는 은도, 송효웅 씨와 이들 뒷편에서 사주를 봐주는 기대 씨.

도 듣고 있는 경화 씨가 카페를 지키는 날에만 열리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 바로 시장의 상인들끼리 모여 맛있는 간식과 커피를 마시는 다과모임이다. 간식은 매번 달라지는데, 이날에는 경화 씨가 잘 익은 애플망고와 달콤한 외플쿠키 등을 준비했다. '옥이네집' 김춘옥 씨, '씨니샌드위치' 김선희 씨가 첫 손님이었던 다과모임은 시간이 지나며 사람이 더 늘어났다. 장사 준비를 마치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려는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아띠를 찾았기 때문이다. '다원공방'과 '마루'의 주인장들에 이어 재래시장 한약방 사모님, 고산미소시장 고객센터 소별아 매니저까지 모이니 아담한 카페 내부가 사람 온기로 금방 데워졌다.

사랑방에 모인 상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고민을 나누고, 가끔은 재미있는 작당모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마침 쌓인 눈을 어떻게 치울지 얘기하다가 별아 씨가 신선한 방안을 꺼냈다.

"시장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작게 해보는 건 어때요?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상품도 받고, 눈사람 만드느라 쌓인 눈도 한쪽으로 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산미소시장상인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경화 씨가 "내년에 또 눈



이 많이 오면 한 번 해보자”고 맞장구쳤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시장 내 가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무엇이 좋을지, 행사 규모나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마디씩 의견을 더하기도 한다. 이들의 재치와 열정을 보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고산미소시장의 매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것 같다.

#### ■ 사주 보는 붕어빵 가게

다과모임이 슬슬 과할 때쯤 밖으로 나왔더니 웬 청년들이 천막을 치고, 그 앞에 가판대를 차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완주 예술인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송효웅, 은도, 기대라는 청년들이었다. 그중 은도와 기대 씨는 프로젝트를 계기로 고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완주살이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고 한다. 각자 본업은 따로 있고 겨울철 금, 토, 일요일에만 장사하는 ‘사주 보는 붕어빵 가게’를 찾는 손님이 꽤 많다. 방금 식사를 마친 사람들도 고소한 반죽에 팔이 듬뿍 들어간 붕어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 봉지씩 품에 안고 간다. 열심히 붕어빵을 굽는 효웅, 은도 씨 바로 뒤에 있는 천막 안에서는 기대 씨가 사주를 봐준다. 붕어빵과 사주의 독특한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묻자, 기대 씨는 “붕어빵 먹으러 온 분들이 호기심에 사주까지 보고 간다. 꼭 붕어빵이 아니더라도 사주만 따로 예약해서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산청년들의 사주 보는 붕어빵 가게만큼 그 옆에서 다원공방 전 윤희 씨가 파는 군고구마의 인기도 뜨겁다. 솜씨 좋은 남편 김동원

씨가 만든 화로로 큼직한 고구마를 굽는데,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고 맛있으니 시간이 꽤 걸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희 씨는 “내내 공방에만 있으면 심심하니 시작한 일인데, 본업보다 이게 더 재미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 ■ 주말마다 찾아오는 어린이 단골손님들

고산미소시장을 찾는 방문객 중에는 단골이 대부분인데, 특히 ‘미소달달’, ‘베이커리 구운’ 등 간식류를 파는 가게는 어린이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씨니샌드위치에 방문했을 때 마침 반가운 단골 손님을 만날 수 있었다. 주인장 선희 씨는 한 어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바로 팝치킨을 만들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 강대원(11) 군이 올 때마다 무엇을 주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희 씨는 “삼우초에 다니는 친구인데 주말 외에도 시장에 자주 놀러 온다”며 “사이다를 좋아해서 원래 세트인 콜라 대신 사이다로 챙겨 준다”고 말했다.

대원 군은 “부모님과 여동생, 이모네랑 함께 시장에 왔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다”며 “특히 팝치킨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찾는다. 다른 것들도 맛있지만 팝치킨은 진짜 최고”라며 웃었다.

고산미소시장은 단순한 장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 해내기 사랑님들과 센터 매니저, 궁금하시죠?

### Q \_ 고객센터 매니저가 된 계기와 매니저로서 하는 일

A \_ 고산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곳에 자주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소품들도 사고...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 마침 고산미소시장 고객센터 매니저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어요. 주로 상인회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상인회를 대신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또 고산미소시장의 오시는 분들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죠.

### Q \_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고산미소시장

A \_ 매니저가 되기 전에는 어쩔 이렇게 시장이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귀를 사로잡는 음악들이 심심하지 않게 해줘요(그게 이제는 제 일이 되었지만요^^). 이렇게 정감 있는 매력에 이끌려 매니저가 된 후, 실제 제가 접한 고산미소시장은 생각보다도 더 따뜻한 곳이에요. 아직 매니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많진 않지만, 이곳에서 저는 '사람 때문에 정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끄끙대고 있으면 누군가 물어보시고 도와주세요. 너무 당연히 말이죠.

### Q \_ 현재 계획 중인 고산미소시장 관련 행사 또는 홍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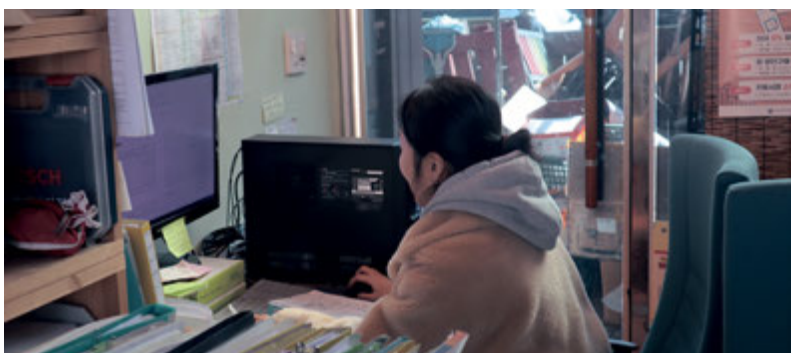
A \_ 고산미소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된 시장인 만큼 이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으로 확장된 것들을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가지 시도와 행사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완주군' 하면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고산미소시장' 하면 어떤 대표 이미지가 떠오르는 행사를 기획하고 싶어요. 또 지역 매체 및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한 홍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에요.

### Q \_ 앞으로 고산미소시장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지

A \_ 주민들에게는 쉽고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관광객들에게는 또 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 되길 바라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어르신 분들이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고산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우리 시장만의  
대표적인 행사  
기획하고 싶어요”

고객센터 매니저 소별아 씨



업무 중인 소별아 매니저





맛있기로 입소문 자자한 자매반찬의 강명경 씨.

## 언니가 농사지은 채소와 동생 손맛으로 만든 반찬

### 자매반찬

지난해 10월에 개업한 '자매반찬'은 고산미소시장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새 가게다. 용진로컬푸드직매장 2층 어우렁더우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일했던 강명경(63) 씨가 1호로 독립하여 고산미소시장에 자리 잡았다.

“다들 꼭 성공해야 한다고 응원도 많이 해줬죠. 로컬푸드로 음식 만드는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가게를 열 때도 로컬푸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언니가 농부라서 재료 수급은 언니가 하고, 음식은 제가 만들기로 했죠.”

명경 씨의 언니는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농장에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한다. 양배추, 블루베리, 토마토, 시래기, 배추 등 가짓수가 다양한 덕분에 웬만한 재료는 언니네 농장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었다. 그렇기에 '자매반찬'에서 판매하는 반찬은 그날의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멸치조림, 찻잎장아찌 등은 기본으로 나물류는 계절에 맞춰 준비하는데, 특히 명경 씨는 봄나물 종류가 많아 봄에 가장 바쁘다고 한다.

용진읍에서 손맛으로 이름 날리던 그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의 단골들이 소식을 물어 고산까지 오기도 하고, 고산에서 처음 만난 고객이 새로운 단골이 되기도 했다. 명경 씨는 “그새 반찬 맛있다고 소문난 거죠.”라며 웃었다.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그는 “요리하는 사람은 자기 음식 먹은 사람이 맛있다고 한 소리에 뺨 가는 법이다. 누가 맛있다고 하는 소리 듣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기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그는 도시락 형태로 반찬을 꾸려 고산휴양림으로 배달을 나가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직 초기라 너무 바빠서 옆집에 못 놀러 가는 게 조금 아쉽지만, 바쁘게 일하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우리 '자매반찬'이 더 알려져서 많은 분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길 바라요.”

- 주소\_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204호
- 영업시간\_ 9:00~19: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문의\_ 010-9165-0755



고산미소시장을 자주 찾다 아예 시장에 개업한 옥이네집 김춘옥 씨.

## 두 번째 도전 끝에 개업 혼돈만둣국+수제비 맛집

### 옥이네집

칼바람이 부는 계절, 푹푹 언 몸을 녹이는 뜨끈한 혼돈만둣국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옥이네집' 인기 메뉴다. 별다른 고명 없이 만두만 넣고 끓여 맑은 국물을 먼저 떠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빈속이 훈기로 데워진다.

'옥이네집'은 주인장 김춘옥(54) 씨의 이름을 따 지은 가게 이름이다. 대아리에서 닭볶음탕, 메기탕 전문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춘옥 씨는 시장 사랑방인 아띠에서 만난 재미난 인연으로 고산미소시장에 발붙이고 지난해 5월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 마시러 여기 왔다가 아띠 사장님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랑도 친해졌지. 자주 오가던 때, 마침 시장에 공실이 생겼다고 하길래 냉큼 개업에 도전했어.”

두 번째 도전에서 붙은 춘옥 씨가 만두와 수제비, 칼국수 등을 팔게 된 이유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중 평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문은 수제비인데 기본, 얼큰, 다슬기 등 기호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니 방문객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겨울 별미인 혼돈만두는 사실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수제비에 서비스로 넣어주었던 것이 시작이다. 만두를 싫어하는 손님도 있어서 넣지 않았다가, 만두만 찾는 손님도 생겨서 혼돈만두만 들어간 메뉴를 따로 팔게 됐다.

쫄득한 식감이 재미있는 혼돈만두는 중국식 물만두다. 고산미소시장 사람들, 특히 고객센터 매니저 별아 씨가 강력히 추천하는 혼돈만두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물었다.

춘옥 씨는 “딱히 비밀은 없고 밀가루랑 물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다. 한국식은 당면 등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혼돈만두는 딱 고기, 부추만 들어간다. 덕분에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혼돈만두 외에도 수제비, 칼국수, 세월 손맛이 담긴 닭볶음탕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들 식사하러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웃었다.

- 주소\_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303호
- 영업시간\_ 11:00~18:00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정기휴무
- 문의\_ 0507-1353-4380





고산미소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 토요장터, 야시장 같은 문화행사가 풍성하다. 사진은 지난해 토요장터의 다양한 행사들.

### 고산미소시장 터줏대감들의 이야기

## 여러 문화 켜이니 오히려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져

#### ■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의 여정

고산미소시장은 많은 상인들에게 단순한 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장소,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상인들에게 고산미소시장은 희망의 터전이자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 ■ 첫 발을 내딛은 이들의 이야기

고산미소시장의 문화관광형 테마장터로서의 첫 걸음을 함께한 만들어 나간 주역들이 있다. 처음 시장은 재래시장을 통째로 자리를 옮겨오려고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고산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중 일부만이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 인해 비어 있는 공간은 공모를 통해 모인 사람들과 익산,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 함께 고산미소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갔다.


아띠 김경화 사장은 “처음에는 전주에서 살면서 카페를 운영했다. 초기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끼리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게 좀 안정되고 나니 여러 문화가 섞여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현재 이곳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유명차 박현정 사장은 “초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낯설어 시장의 분위기가 모호하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점차 편안해지고 문화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해 있어 시장이 활성화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가네 황미옥 사장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땐 사람들이 많이 왔다.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장이라 인기가 좋았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예전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웃었다.

#### ■ 함께 그려나갈 미래

2025년을 맞이한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완주군의 지원을 받는 이 시장은 올해에도 시장상인회가 힘을 합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토요장터, 어린이 물놀이터, 가막축제 등 여러 인기 행사들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올해는 이러한 행사를 보완하면서도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이다. 단순한 시장 방문을 넘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 시장 사장님들이 답했어요

#### 나에게 고산 미소시장은

사남매꽃감	행복
베이커리 구운	완주살이의 시작
카페 아띠	나의 삶
씨니샌드위치	나의 희망
조광상사	화목시장
바느질정원	나만의 힐링공간
미소달달	행복
자매반찬	행복
시장옷집	나의 활력소
시장그릇	나의 비타민
소연식당	일터이자 삶
농가	행복
다원공방	나의 쉼터
널리널리 흥흥	다정함과 우정이 가득한 곳
다미가	삶의 의미
황가네밥상	보약
비빌언덕 중개사무소	새로운 시작
건강이야기	내 삶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흐르는

# 고한미소시장 재미난 가게들

**고산미소한우(정육점&식당)**  
최고의 품질, 착한가격 소문난 한우전문점  
- 품목 : 한우, 갈비탕(한정판매), 육회비빔밥, 불낙전골(계절메뉴)  
- 영업시간 : 정육점 9시~ / 식당 11시 ~ 21시

**505 백옥관**  
요리에서 배달까지 중화요리의 기본을 지키다  
- 품목 :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중식  
- 영업시간 : 10시30분 ~ 19시

**504 고산소머리국밥**  
한우 육수로 만든 국밥, 김치 밑반찬 맛집  
- 품목 : 한우소머리국밥, 뼈다귀탕  
- 영업시간 : 11시 ~ 19시

**503 황가네밥상**  
제철 밑반찬, 화학 조미료 없는 건강한 상차림  
- 품목 : 백반, 버섯전골 등 한식  
- 영업시간 : 8시30분 ~ 20시

**502 다미가**  
특제소스, 등심 돈가스~ 분식, 한식을 한국에서  
- 품목 : 돈가스, 비빔밥, 소바 등 분식  
- 영업시간 : 11시 ~ 19시

**501 자유명차**  
몸과 마음을 살피는 찻집  
- 품목 : 보이차, 무이암차  
- 영업시간 : 12시 ~ 18시

**101 사남매갸감**  
완주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 품목 : 귤감, 감말랭이, 감식초  
- 영업시간 : 11시 ~ 16시

**102 베이커리 구운**  
갸 구운빵과 갸식이 있는 마을빵집  
- 품목 : 우유식빵, 치아바타, 소금빵  
- 영업시간 : 10시 30분 ~ 19시

**103 카페아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만나는 고산 맛카페  
- 품목 : 커피, 음료, 쿠키, 김밥  
- 영업시간 : 8시30분 ~ 20시

**104 써니샌드위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웰빙디저트  
- 품목 :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 빙수  
- 영업시간 : 7시 ~ 17시

**105 조광상사**  
생활필수품이 가득한 곳  
- 품목 : 천막재료, 스카프 등 생활잡화  
- 영업시간 : 10시 ~ 18시

**106 감나무책방**  
책도 읽고 손바느질도 하고! 아기자기한 공간  
- 품목 : 책, 핸드메이드제품(가방, 앞치마, 옷)  
- 영업시간 : 10시 ~ 18시

**107 삼성상회**  
완주의 건강한 농산물이 모인 곳  
- 품목 : 채소, 젓갈  
- 영업시간 : 9시 ~ 17시

**201 오순도순멜로디**  
음악을 향유하고 배우는 문화 공간  
- 품목 : 음악 향유, 다양한 차(Tea)  
- 영업시간 : 10시 ~ 19시

**202 바느질정원**  
자연을 담은 옷과 핸드메이드 소품  
- 품목 : 핸드메이드 소품, 린넨옷  
- 영업시간 : 10시30분 ~ 17시

**203 미소달달**  
쫄득한 식감, 적당한 달달함!  
유기농 설탕과 천연 색소로 만드는 마카롱  
- 품목 : 마카롱, 핸드드립 커피  
- 영업시간 : 12~17시 (예약주문)

**204 자매반찬**  
농부 언니와 손맛 좋은 동생의 협업  
- 품목 : 반찬  
- 영업시간 : 11시~19시

**205 시장번대웃집**  
세대를 아우르는 레트로 느낌의 옷  
- 품목 : 등산복, 뽀뽀, 누빔갈래기 등 의류  
- 영업시간 : 9시 ~ 18시

**206 시장그릇**  
주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 품목 : 냄비, 반찬통 등 그릇류  
- 영업시간 : 9시 ~ 19시

**302 마루**  
핸드메이드 가족 제품, 너만의 가족 소품  
- 품목 : 가족공예, 잡화  
- 영업시간 : 10시~18시

**303 옥이네집**  
정성 가득한 만둣국의 따뜻한 집  
- 품목 : 수제비, 혼돈만둣국, 닭볶음탕, 부침개  
- 영업시간 : 11시~18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정기휴무

**304 소연식당**  
로컬식재료로 육수와 반찬을 만드는 건강한 집밥  
- 품목 : 순두부, 제육볶음, 된장찌개  
- 영업시간 : 9시~16시

**305 농가**  
산딸기, 블루베리를 직접 생산하여 쪼금지 짜약~  
- 품목 : 각종효소, 누룽지 등 가공식품  
- 영업시간 : 10시 ~ 20시

**306 어울러**  
감쪽한 아이템이 가득한 곳  
- 품목 : 액세서리, 패션양말, 추억의 과자  
- 영업시간 : 10시30분 ~ 18시30분

**307 다원공방**  
맞춤, 주문 제작하는 나무공방  
- 품목 : 원목도마, 빵도마, 원목식탁, 야외테이블  
- 영업시간 : 10시 ~ 18시

**308 고산이모**  
12시간 숙성시켜 만드는 요구르트 발효 연구소  
- 품목 : 요구르트, 딸기잼  
- 영업시간 : 9시 ~ 19시

**309 오솔길행복상회**  
디저트 카페, 달콤한 수제아이스크림  
- 품목 : 수제롤케이크, 썬카스테라, 쿠키, 천연아이스크림  
- 영업시간 : 10시 ~ 18시

**310 널리널리 흥흥**  
완주의 다양한 상품 편집 공간  
- 품목 : 머리핀, 미니화분 등 잡화류  
- 영업시간 : 10시 ~ 18시

**311 건강이야기**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최신 보청기  
- 품목 : 건강보조식품, 건강매트 등  
- 영업시간 : 10시 ~ 18시

**312 시그림연구소노라**  
창의적인 아트를 즐기는 곳  
- 품목 : 아트상품

**313 비빌언덕 중개사무소**  
무엇이든 실험해 볼 수 있는 곳  
- 품목 : 공간대여, 귀는귀촌정보 제공, 굿즈 제작  
- 영업시간 : 화~토 10시 ~ 16시

# 소망 담은 달집 활~활~ 타올랐다

## 완주군 읍·면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하는 달맞이 행사가 각 읍·면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달집 태우기, 연 날리기, 박바가지 밟기, 강통쥐불놀이,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복유치, 완주 인구 10만 조기 달성,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유치 기원을 담은 현수막과 주민들의 소원지가 달린 달집을 태웠다.

한편, 지난 8일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개최한 ‘운수대통 완주 달축제 달아달아 둥근달아’ 행사에서는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LED 장비로 제작한 달집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삼례행정복지센터 공터에서 열린 정월대보름행사에서 주민들의 소원지가 붙은 달집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이서면 초남이 마을주민들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부 유치를 소망하는 달집을 태우고 있다.

## 이색적인 LED달집도 등장



지난 8일 주말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열린 '윤수대통 완주 달축제 달아달아 둥근달아' 행사에서는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LED 장비로 제작한 달집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소원지가 붙은 달집이 활활 타오르고 참가자들은 달집을 보며 저마다의 안녕과 소원을 기원했다.



### 동상 황조리마을 김맹준 이야기2

- 지난 호에 이어 계속 -

하염없이 내린 눈에 모두 무사하신지요. 오가는 길은 제설이 되었는지, 엄동설한에 보일리는 잘 돌아가는지, 이 추위도 곧 물러가겠지요.

몇 년 만에 매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스럽게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도 오랜만에 마주한 설경에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오래도록 산이나 들 관을 바라본다.

지난달에 이어 동산면 황조리마을 김맹준(1955년 생)씨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 역시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올라야 할 산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2월 초면 황새목에 고로쇠 채취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눈이 온다고 하네요. 표고목 구해서 구멍도 뚫어놓아야 하는데 산을 못 올라가. 동산면은 다른 곳이랑 10도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계곡이 깊어서 다른 곳보다 추워요.”

#### 고향 떠나 자개 깎는 기술자가 되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김맹준 씨의 노동연대기는 24살 무렵 고향을 떠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향 떠나 살라는 어머니의 말에 16살 여동생과 함께 익산에서 월세방을 얻고, 동양물산에 취직한 그는 자연 속에서 흠을 만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일머리 덕분에 금세 공장일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 15일 주간, 15일 야간 일을 하는데 4만 8천 원을 주데. 전주 사는 삼촌한테 돈 잘 버는 일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자개 깎는 기술을 배우라고 하더라고. 내가 18살에 대구에서 장롱 조각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나는 스스로가  
피어난 꽃이야”

“그 당시 전주 장승백이 날맹이에 자개 깎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술을 배운 거지. 하나 깎으면 500 원, 한 시간에 두 개 깎는다 치면 하루에 만원 벌겠더라고요. 그때는 자개농이 인기 많았던 시절이니까 일감도 많았죠. 두 달 반을 일했는데 이 양반은 사업가가 아니라 예술가 같은 사람이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익산에서 전주까지 다니는데 차비도 못 줄 정도니까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사만 원, 어머니가 누에고치 팔고 건넨 사만 원, 여동생의 월급 삼만 원을 모아 공장을 차렸다. 자개를 세밀하게 자르기 위해 치과에서 사용하는 세공기 한 대와 책상 하나

5월 15일, 광주 충장로를 찾았다.

“자개 깎는 곳이 충장로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간 거야. 공장 사장한테 물건을 맡기고 19일에 찾으러 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자개가 문제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그것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어떻게 놓고 가는가. 어렵게 그 사장 집을 찾아갔는데 오늘 밤 익산 가기는 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집 사장이랑 데모하러 충장로에 가본 거지. 데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류탄 냄새를 맡은 거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다 죽겠더라고. 그 사장도 식구들 데리고 피난 가면서 헤어지고 이튿날 길거리에서 사람들

공간을 마련했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며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다. IMF를 겪으며 가구사업을 정리하고 그는 다시 고향의 흙을 만지는 삶으로 돌아왔다.

김맹준 씨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일흔을 넘긴 그는 어린 시절 자주 앉아 있던 마을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여전히 흐르는 물과 산을 바라본다. 혼자서 한나절을 앉아 있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세상의 풍랑을 모두 겪고 단단해진 김맹준 씨의 이야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열아홉 살 시절, 소나기에



소년시절 화전을 일궜던 황새목을 향해 걷는 김맹준 씨.

를 마련해 혼자 시작한 작은 공장이었다. 다행히 주변에 가구공장이 많아 일이 자주 들어왔고, 자개농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었다.

“사람이 뭔가 되려면 운이 따르는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죠. 말이 공장이지 50만 원짜리 이간장방을 얻어서 가운데 합판을 대고 한쪽에서 동생이랑 나랑 살고 한쪽을 작업실로 꾸린 거지. 익산 살 적에 그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거리는 서울에서도 밀려왔어요. 솜씨가 좋고 내가 수공비를 싸게 받았어.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들 가격보다 3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을 했던 거였더라고. 일이 많으니 직원도 두고 작업했는데 솜씨가 다르니까 나 혼자 그냥 했지. 조개껍데기는 주로 인도네시아산 소라껍데기로 했지. 거친 부분 벗겨내고 관관한 부분만 포개진 상태로 수입이 돼요. 비싼 원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2년 만에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되었다. 일감이 넘쳐나는 시절이어서 혼자 작업하기 벅찰 때면 광주의 자개 깎는 공장에 일을 맡기기도 했다. 김맹준 씨는 자개원료 20kg을 등에 지고 1980년

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광주 시민 2명이 죽었다’고 앵커가 말하니까 온 시내가 순간 들썩거렸어. 몇천 명이 죽어나갔는데 뉴스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나까. 그 길로 피난 가는 사람들 따라서 90리를 걸어서 영광 문장리까지 갔어. 그때 만난 우체부 아저씨가 참 고마웠어. 낯선 나를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밥도 주고 빠져나갈 길을 알려줬지. 몇 년 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 없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50리 자갈길을 달려 장성으로 갔더니 광주로 들어가려는 외신기자들이 드글드글혀. 길목마다 군부대하고 탱크가 길을 막아놓았는데 나는 다행히 군인들이 보내주더라고. 장성에서 백양사까지 걸어서 정읍에서 기차 타고 탈출했지.”

안방의 위풍당당하던 자개농은 서서히 사라졌고 원목가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는 가구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던 시기였다. 전주에 단독주택도 마련하고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사업을 키웠다. 1994년 10월 여의도에서 제1회 전통공예품박람회가 열렸고 김맹준 씨도 많은 돈을 투자해 전통가구 전시

온몸이 젖어 싹싹거리고 있는 자신에게 건네는 듯한 말 같다.

“황새목에서 담뱃잎 따서 지게에 이고 개울가 허청(헛간)있는 대로 오려면 보통 4번은 쉬어야 할 수 있어. 거리가 그만큼 멀어. 그날따라 비구름이 몰려오더라고. 조바심이 나서 그 먼 길을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온 거야. 생담배잎이어서 비에 맞아도 암시랑도 안하는데 말이야. 허청에도착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 비를 다 맞았지. 얼마나 한심한지, 서글프더라고. 잠깐 퍼붓다가 해가 뜨는데 그 모래밭 사이에서 잠초가 올라와서 꽃이 폈더라고. 봄에 봄비를 맞고 새싹이 똑같이 올라와도 다 달라요. 어떤 놈은 꽃부터 피다가 일찍 삶이 끝나고 어떤 놈은 늦은 가을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사람의 삶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 도움으로 일찍 피기도 하지. 내 삶은 고달팠지만 사는 날까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가 피어난 꽃이야.”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6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 나를 격려하는 글씨

캘리그래피 작가 신선하

미술을 좋아했지만 소질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전공도 공학이다. 취미가 될 수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 세 자녀의 엄마가 되는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또래 여성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육아에서 해방되면 나도 반드시 취미생활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셋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화센터로 달려갔죠. 수채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집 마감된 거예요. 마감 안 된 게 뭐가 있나 살펴봤죠.”

딱 한 자리 남아 있던 게 캘리그래피였다. 신선하 작가는 그렇게 우연과 필연의 사이에서 캘리그래피를 만났다.

“처음에는 선생님 글씨를 따라 쓰는데 소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미를 못 느껴 몇 개월 배우다 말았어요. 남은 재료가 아깝더라고요.

다른 곳에 다시 등록했죠. 어르신이 많은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옆에서 하고 있으니깐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용기도 생기구요.”

즐거우니 온라인 등을 보면서 혼자서 막 써보고 그걸 어르신들에게 가져가면 또 칭찬받고 하는 동안 자신감이 올라갔다. 배우고 싶은 작가가 있으면 찾아서 수강했다. 그런 삶이 지속되던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 애들을 재운 것 같은데 벌써 새벽이었고 자신은 그때까지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때 ‘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두근두근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캘리그래피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꾸준히 전시도 하고 있고 요새는 글씨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대학원에서 서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캘리와 서예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서예가분이 방송에 나와 ‘캘리그래피는 꽃이고 서예는 산이다. 그래서 꽃구경하러 왔다가 등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꼭 제 얘기더라고요. 사전상 캘리그래피도 ‘서예’로 정의됩니다. 전통적인 서예가 문방사우라는 정해진 도구를 가지고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쓰는 정적인 예술이라면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도구,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동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서예와 구분 지어 현대서예라고도 합니다. 간판, 로고, 드라마 타이틀, 각종 생활 소품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실용성, 대중성을 갖고 있죠. 또한 글이 주는 감동과 아름다운 문자가 주는 감동, 두 가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예를 공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씨를 쓰다 보니 전통적으로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를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붓과 먹, 화선지 같은 전통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 안전감 같은 걸 더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알기 위해서 깊이 배워보자는 마음이었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일단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죠. 스케치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처음에 정한 주제가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머릿속의 생각이 손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비> 전시를 진행했는데 처음 주제는 그게 아닌 ‘컬러풀’이었어요. 까맣게만 보이는 먹 안에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렸어요. 막막하고 힘들어할 때였는데 윤도현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가사에 꽂혔죠. 마치 캘리그래피로서의 제 삶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주제는 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스케치하고 준비가 끝나면 본 작업을 합니다.

**작품에 담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일상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들을 글씨와 함께 풀어내어 보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한때 산 후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

을 가지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인지 나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어요. 자신조차 격려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작품은 다른 이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감정이 오롯이 다른 이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굉장히 정제해서 담잖아요. 그렇기에 그 안에 표현된 글이나 그림들은 무척 아름답거든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진이나 음악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풍경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작품세계가 있다면**

나만의 글씨, 나만의 느낌을 담고 싶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세 아이 엄마로서의 경험과 감정이 작품에 깊이 배어 있는 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강렬한 메시지보다 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는 따뜻함을 글씨에 담고 싶어요.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통 서예의 기법과 깊이가 현대적 감각과 어우러져 전통적인 붓글씨의 안정감과 현대 캘리그래피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네요.

**선생님의 작품을 잘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씨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리듬, 그리고 먹의 작



은 번짐 속에도 의미를 담고자 했어요. 그런 의도들을 잘 파악해 보려면 천천히 오래, 지긋이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말이죠.

**특히 애착 가는 작품이 있다면**

<나비> 연작입니다. 제 속의 이야기를 윤도현 씨의 노랫말에 기대 표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을 이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잖아요. 저도 캘리그래피를 하면서 상처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을 담았기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요**

나는 일상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글씨로 풀어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세 아이를 키우며 겪는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을 격려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글에서 한번, 글씨에서 한번, 그림에서 또 한번 이렇게 세 번의 감동을 주는 시서화의 조화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소문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캘리그래피 에세이집을 펴내는 일입니다. 직접 쓴 글과 글씨와 그림으로 된 저만의 책을 내는 소망이 있거든요.

##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희망의 봄을 기다리는 2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 우드카빙으로 짬칼 만들기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짬칼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평범한 짬칼이 아닌, 나만의 손길이 담긴 우드카빙 짬칼을 만든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2월 22일 (토) 오후 2시  
참가비: 5,000원

#### || 수요일 영화데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달에는 '행복을 찾아서', '퍼스트맨', '그녀-HER', '오픈하이머'를 함께 본다. 따뜻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2월 19일, 26일 (토) 오후 2시

#### || 저속노화밥상 ||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2월 20일, 27일 (목) 오후 6시  
참가비: 3,000원

#### || 목요일 음악감상실 ||

한국 대중음악 명반100 앨범리뷰,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책을 길잡이 삼아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2월 20일, 27일 (목) 오후 6시

#### || 화요일 축구다큐 ||

청춘방앗간에서 '화요일 축구다큐'를 길잡이 삼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봄에는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2월 18일, 25일 (화) 오후 7시

#### || 금요일 독서클럽 ||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2월 격주 금요일 예정 오후 3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 "2월 한 해의 시작을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2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2월 22일 (토) 오후 2시	빅슬립	드라마	15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2월 25일 (화) 오후 7시	신과 함께	드라마	15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완주고산한우FC 풋볼 회원 모집

완주고산한우FC 팀에서 함께 즐기고 성장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35세 이상 여성으로 운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풋볼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기간: ~2월 28일 (금)  
문의: 010-8772-4305



### 완주 고산 남·여 의용소방대원 수시 모집

완주소방서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을 수시로 모집한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재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완주를 함께 만들어갈 의용소방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완주소방서 대응예방과 063-290-0232 전화 문의 하면 된다.

###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공익직불금이다. 농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신청은 1차 비대면 신청, 2차 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청방법

1차 비대면 ~2월 28일 (금) 농업인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업인 전용 앱을 통해 신청  
2차 대면 3월 1일(일) ~ 4월 30일(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양배추 (♂)  
애교가 많은 귀여운 양배추!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6kg  
나이: 5개월  
건강상태: 중성화 필요, 종합, 코로나 접종 완료

양배추는 자가 미용된 상태로 보호소에 입소했다. 배추는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으며 순둥하다. 이런 배추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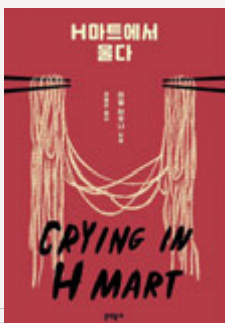


양배추

##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음식 이야기, 자전적 에세이, 그리운 이를 떠올리며**

### H마트에서 울다



미셸 자우너 씀 | 정혜윤 옮김 | 문학동네 | 224쪽 | 2022 | 16,000원

저마다의 '인생 OO'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지향을 살짝 엿볼 수 있다. '인생 영화'로 우당탕탕 <극한직업>을 끄는 사람과 잔잔한 <시월애>를 끄는 사람 사이를 가능해 보는 재미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 태어난 축복을 누리는 행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생 음식은? 죽기 전에 딱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떠올리게 될까. 그리고 하나의 음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을까?

세련된 패션 취향과 음식에 관해서는 다소 극성일 정도로 확고한 기준을 가진 한국인 엄마와 있는 듯 없는 듯 어른아이 같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은 한인 2세대. 미셸은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지만 다른 엄마들과는 사뭇 다른 엄마 덕분에 미국 안에서 한국을 듬뿍(?) 느끼며 살아간다. 25살, 이모와 엄마를 모두 암으로 잃으며 흑처럼 달린 상실을 견디는 미셸은 엄마가 해주던 한국 음식들로 스스로를 치유한다. 미국판 <리틀 포레스트>까지는 아니어도 큰 이야기 즐기는 비슷하다. 음식으로 기억을 되살려 추억으로 바꾸어 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말이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도 손님만 오면 만들던 양념 갈비, 고소한 잣죽, 손가락에 끼워 먹는 짱구과자 등 음식에 깃들여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침이 고이고, 눈물이 흐른다. 한국인 특유의 씩씩함이 글 속에 배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눈은 부어 있고 어느새 배가 고프다.

책을 만들고, 책방을 운영하며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일까에 관해 오래 생각해왔고,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이 변했다. 요즘은 '누구에게 권해도 모두가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H마트에서 울다>는 분명 좋은 책이다. 음식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자전적인 에세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누구에게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스럽지 않은 미셸의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봄을 기다리며, 그리운 이를 떠올리며 한 번쯤 읽어 볼 수 있는 좋은 책, <H마트에서 울다>를 권한다.

###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 설레

#68 여행의 조건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기쁨의 길, 2024, 한지에 먹,아크릴, 90x120cm

## 박청용 작가 '기도하는 사람들'

### 3월 14일까지 고산 지유명차 완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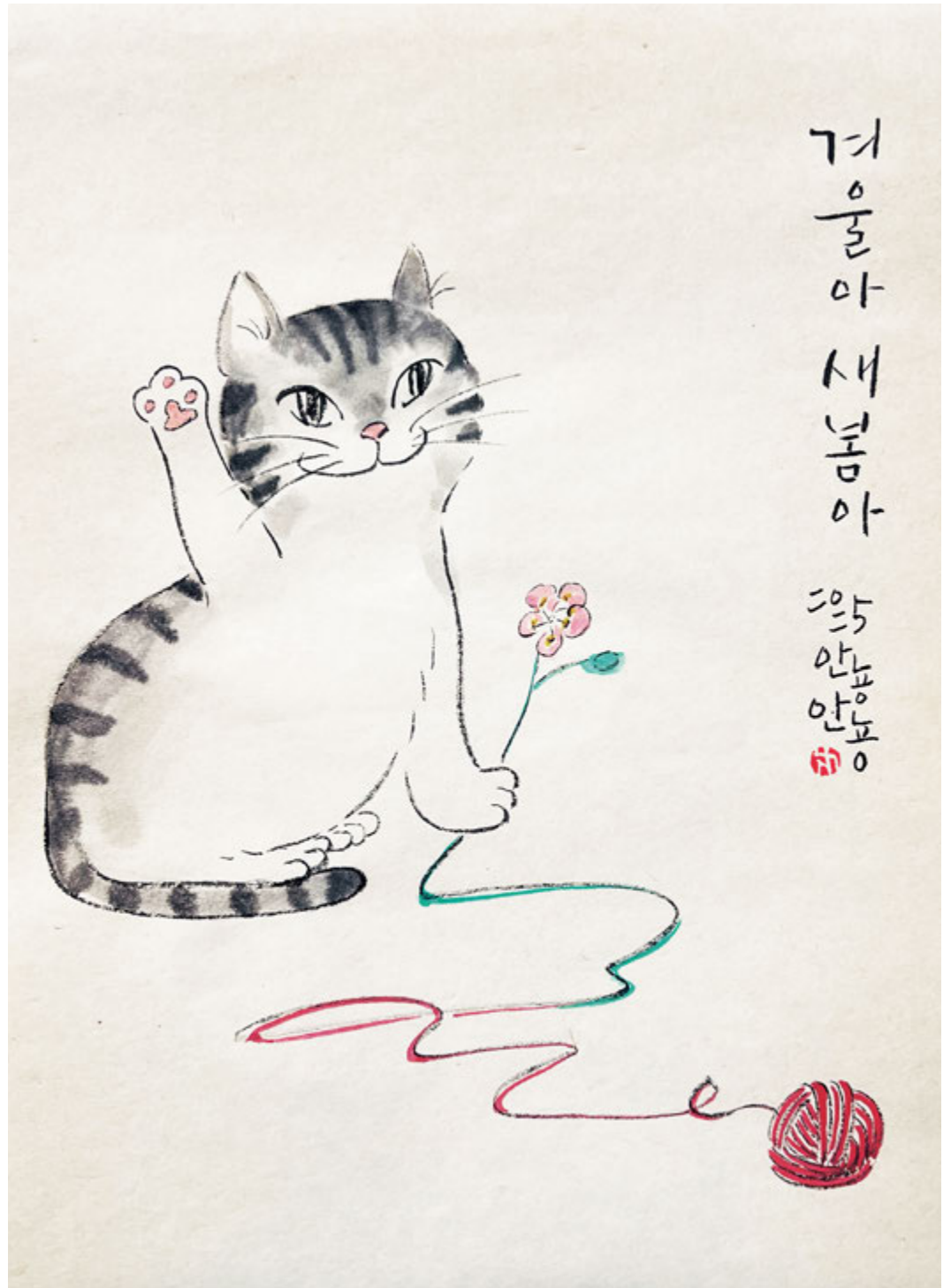
박청용 작가 전시회가 고산 미소시장에 위치한 지유명차 완주점에서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린다. 지유명차 완주점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그림과 차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박 작가의 대표 연작 <기도하는 사람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쁨의 길> 등과 신작 시리즈 <관(觀)-바라보다> 등을 포함한 1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청용 작가에게 기도는 본인의 삶에서 주요하게 조명되는 기억이자 그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모티프로 존재와 시공간 너머, 생명에 대한 끊임이지 않는 탐구와 진실(깨달음)을 향한 구도(求道)의 매개체로 강조된다. 그의 작업은 기도하는 인간 군중 형상이 화면에 전면 드러나는 공통된 근간을 이룬다. 표정 없이 미세한 필치로 삼천배, 만배,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의 몸짓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이 반복과 평행의 리듬감 있는 신체성을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한반복의 이미지는 하나의 단위 요소가 되어 몇 개의 점과 선으로 만들어져 한 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 점, 선, 면은 무한히 뻗어나가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담긴 삼라만상을 그려낸다. 작가는 한지와 먹의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자연의 물성인 한지의 스며드는 맛과 먹의 자연색이 어우러져 마음의 창, 문, 우주의 무한성과 깊음의 층을 시각화한다.

1979년에 태어난 작가는 먹이나 물감의 번짐을 미세한 붓놀림, 미묘한 차이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 다수의 개인전과 수상 실적이 있는 박청용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충청북도청, 경주예술의전당 등에 소장되어 있다.

기간: 2025년 2월 14일 ~ 3월 14일  
장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5 지유명차 완주점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멧뭉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격절의 모순 극복을 위한 기도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4) 금관의 예수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아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아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1972년 공연된 동명의 마당노래극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극은 김지하 시인의 [구리 이순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연극대본을 시인이 직접 대폭 수정을 하고, 이를 다시 연출과정에서 계속 가다듬어 완성시킨 연극입니다. 한 때 원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였지만 합동창작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김지하의 시에 김민기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성당 앞에 금관을 쓴 예수가 서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거지가 신음하고 있고요. 그 앞을 부자도 지나가고 사제도 지나가지만 이 거지를 챙기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그를 쫓아 내려 합니다. 집도 가족도 먹을 것도 없는 거지의 탄식만이 허공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때 거지가 금관을 쓴 예수를 발견하고 저 금관을 가져가면 한 평생을 편히 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어서 이 금관을 가져가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합니다.

가시관 대신 금관을 쓴 예수, 물욕에 사로잡혀 권력을 탐하는 타락한 제도권 종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려 했던 예수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상화하여 돈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 시멘트 옷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세태는 별반 나이지 않았습다. 유신 시절을 극복했나 싶었는데 못지않게 참담한 계엄의 시절을 견뎌내야 할 판국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극단적 발언들이 난무하면서 옹고 그림의 판단은 오히려 더욱 어

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더욱 팽배해져 종교지도자들마저 탐욕의 손길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 지났다 싶은 이 기도의 노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이러한 격절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다짐 혹은 그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적시함으로써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음반 발매 허가를 얻기 위해 북한의 참혹한 상태를 그린 것으로 개사하여 불리기도 했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어두운 북녘 땅에 아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오 주여 이제는 그곳에 저들과 함께 하소서...)

슬픈 노래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을 주듯 절망의 탄식이 오히려 희망의 마음다짐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큰 위안이 되었던 절망의 희망가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이슬]도 부를 필요가 없고 [상록수]도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절은 없나 봅니다. 이런 다짐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 엄혹한 시절 잘 극복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완두콩협동조합의 디자이너 강다애 씨 득남

1월 중순,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의 디자이너 강다애 씨가 득남했다.

1월 18일 오후, 3.7kg의 건강한 아들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

태몽은 꿈속에서 황금물고기 두 마리가 남편 품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었다고 전해지며 아들의 이름은 고우진이다. 밝은 미소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준 우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아빠와 엄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줄 아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한다”며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며 항상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아이로 키울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어떤 일은 모른 척해야 하는 거야”

### 김영혜의 영화산책

#### (1) 이처럼 사소한 것들

어두운 거리에 찬비가 내린다.

포석이 깔린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빗물이 흐르고, 골목길 양쪽으로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다. 그 집들 어디에서도 따듯한 불빛은 새어 나오지 않는다.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를 병거지 털모자를 쓴 한 사내가 구부정한 어깨를 한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다.

그래, 아일랜드가 아닌가.

주인공 빌 펄롱은 아일랜드의 한 중소도시에서 석탄과 가스를 파는, 자수성가한 사장님이다. 말이 사장님이지, 우리로 치면 연탄에 해당하는 석탄, 갈탄 덩어리와 가스통을 인부들이 트럭에 실어주면 그걸 집집마다 직접 배달해주고 연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불과하다.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는 살뜰한 아내와 고등학생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네 명의 딸을 두고 작은 집에서나마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버지를 모르는 채 농장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미혼모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주는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긴다. 도시의 모든 것을 은근히 지배하고 있는 수녀원에서 우연히 ‘그 일’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



영화 포스터

팀 밀란츠 감독, 킬리언 머피 주연, 2024, 아일랜드

은 빌 펄롱으로 하여금 수녀원에서 목격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고, 겨우겨우 이룩한 ‘사소한 행복’으로 이루어진 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이를 눈치챈 아내는 기겁을 하며 빌 펄롱이 수녀원장의 심기를 거스리지 못하도록 만류하지만, 착하고 어린 심성의 소유자 빌은 괴로워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은 모른 척해야 하는 거야!”

아내가 빌을 만류하며 내뱉은 이 한마디는 머나

먼 아일랜드가 아니라 2025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른다. 너무도 익숙한, 그러면서도 단박에 거부할 수 없는 이 한마디의 말. 사실 우리들의 삶은 지겹도록 사소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타기하듯 요리조리 피하고, 외면하고, 타협하는 선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누군가는 과감히, 또 누군가는 번민 끝에 떨쳐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하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빌 펄롱 같이 끝내 떨쳐 일어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운 킬리언 머피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영화에서도 훌륭하지만, 수녀원장역을 맡은 에밀리 왓슨의 연기도 매우 인상 깊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한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이 영화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즐거움.

이 영화는 원작이 있다. 국내에도 얼마 전에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듯.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마을 소식

#### 양지뜰사회적협동조합 가치식당 새 단장

양지뜰사회적협동조합(이하 양지뜰)이 2월 3일부터 완주경제센터 별관 가치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점심시간, 가치식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활기로 시끌벅적했다. ‘마을 건강지킴이 양성교육’에 참여한 60여 명의 교육생이 식사를 위해 가치식당을 찾았기 때문이다. 인당 8,000원 식권을 구매하면 맛볼 수 있는 한식은 신선한 제철 나물, 든든한 불고기 등 정성이 가득 담긴 4가지 반찬과 국, 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밥을 제외한 국과 반찬은 매일 종류가 달라진다.

양지뜰은 올 한 해 식당운영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

으로 지난 1월 식당운영지원사업단 근무자를 모집 및 교육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사업단의 근무자는 모두 5명이며, 식당을 운영했거나 식품 관련 노인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 중이다.

양지뜰 식당운영지원사업단을 담당하는 김선희 씨는 “운영 초기 하루 방문객 수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아 시행착오를 거쳤다. 시간이 흐르니 밥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생기고 운영이 안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내에서 교육 등의 행사로 예약이 잡힌 날



이 아니면 식당 이용 인원이 스무 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식당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맛있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찾아와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 행복한 '농사를 쉬는 기간'

농/촌/별/곡



차 남 호

이번 겨울은 눈이 참 많이도 내린다. 자주 내리기도 하거니와 그때마다 평평 쏟아져 설국을 만들어 놓는다. 발코니의 네모난 철제 테이블 위에는 어마어마한 백설기가 얹혀 있고, 그 너머로 펼쳐진 앞산 자락은 단색 수목화를 담은 거대한 병풍으로 돌변한다.

지난 설 연휴에 내린 눈은 고산 땅에 살면서 처음 겪은 큰 눈이었다. 차도로 통하는 진입로에 엄청난 눈이 쌓여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눈이 그치지 않으니 치워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 늦게서야 이웃 네댓이 달려붙어 두 어 시간 치우고서야 겨우 길이 뚫렸다. 기상용어로는 '폭설'이다. 그 폭설에 여기저기 폭삭 주저앉은 비닐하우스에 견주면 제설작업이란 사실 애기거리도 못 되는 일이다. 그리고 엇그제 또 눈이 제법 내렸다. 학습효과라

고 할까, 이번엔 차를 미리 도로변에 주차해두어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조금 전 뒷산에 다녀오는 길이다. 오르막과 능선 쪽으로는 아직도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제법 쌓여 있다. 아무도 지나지 않은 하얀 오솔길에 첫 발자국을 내는 그 쾌감을 혹시 아시려나? 눈을 내리깔고 '흰 누리'를 거닐다 보면 이내 사념의 세계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세간사에 머무는 게 보통이지만 가끔은 출세간의 삼매에 빠져들기도 한다. 당을 듯, 말 듯 궁극의 경지. 문득 눈 속에 파묻혀 가부좌를 튼 늙은 스님이 불든 화두는 어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산마루에서 굽어보는 들녘은 온통 은세계다. 가물 가물 눈에 들어오는 가옥, 아파트, 가게, 시설물... 하지만 저 눈 속에서도 세상사는 그대로 이어질 테다. 사람들은 늘 해오던 대로 일상을 바빠 꾸러가겠지. 문득 그 삶이 '등이 흰 것 같이' 무거울까 궁금해진다.

그래, 한창 농한기를 지나는 농부에게 지금은 그럴 때다. 큰 눈에 갇혀 움작달작 못 하고 울안에 갇힌들 무슨 상관이라. 밥벌이하러 나설 일도 없 거니와 고립이란 외려 번다한 세상사와 거리를 두기에 더없이 좋은 핑계 아니던가. 서둘러 제설작업 하는 이웃들 틈에 끼어 마지 못해 너가래 짚을 하노라면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그 핑계로 대병

청주 뜨끈히 중탕해서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을 안주 삼아 낫술 몇 잔 걸치는 맛은 또 어떨든가.

이리 뒹굴, 저리 빈둥 한없이 게을러져도 아무렇지 않은 시절이다. 눈이 녹아 길이 뚫린다 한들 딱히 나설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펼쳐 든다. 얼마 전 다녀온 근현대미술 전람회를 떠올리며 설연휴 내내 서양미술사를 다시 훑어본다든가, 고전읽기 모임에서 채택한 대장편 소설을 파고드는 식이다.

록음악의 역사를 다룬 책을 읽다가 사이키델릭 밴드를 다룬 뮤지컬영화를 30년 만에 재상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느닷없이 번개를 쳤는데 다행히 세 명이나 붙었다. 전주 도심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밤이 이슬토록 감상평을 나누다 보니 테이블에 위에 빈 술병이 수북하다. 숙취 탓에 마지막 눈을 떠도 그만이다. 며칠 뒤에는 고전소설 독후감을 나누기로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게 뻔하다.

농한기는 이렇듯 무척 거르롭게 흘러가고 있다. 문득문득 '이리 빈둥거려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물론 밥벌이 노동에 대한 무의식적 강박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농한기가 차츰 끝나가는 현실이 조바심으로 나타났음이다. 그래도 내게는 '농사를 쉬는 기간'이 아직 두어 달이나 남아 있다. 행복하다.

비봉 염암마을

### 완주군의회 소식

## 김재천 의원, 복지시설 아동들과 관현악 관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함께 기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2월 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을 기념해 마련됐다. 김재천 의원을 비롯해 지역 아동복지시설 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동복지시



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지원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정신건강상담 | 치료비지원 | 자살관련 상담 | 자살유족지원 | 중독관리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완주군 |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완주군자살예방센터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Very Berry  
Sweet Samrye

23th 3.7.(금) ~ 3.9.(일)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완주삼례딸기대축제

주최·주관: 완주군 WANJUGUN 삼례농협 완주문화재단 행사후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우석대학교 완주DMO

문의처: 삼례농협 063-291-2711 출연가수: 태진아/ 짜이/ 이희정밴드/ 민지(트로트)/ 김민제(색소폰)